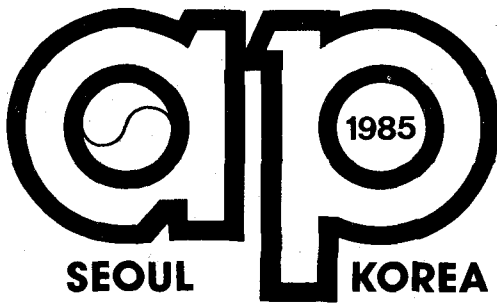




AAP 제 3 차총회, 학술발표회 및 전시회
 - 85년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워커히 호텔서 -



주제 : 효율적인 가축생산에 의한 아시아인의 복지향상

주요마감일	
1984년 8월 31일 :	(1) 발표논문초록 제출마감 (2) 전시관계 신청 마감
1985년 1월 31일 :	논문제출 마감
1984년 7월 31일 :	사진등록 마감

주최 : 한국축산학회
 후원 : 농수산부 · 축협중앙회

직전회장 V. G. Arganosa
 (필리핀)
 사무총장 김현욱
 대회조직위원회 : 위 원 장 김동암
 부위원장 지설하
 사 무 장 김성겸

대 회 장 소 : 서울 워커히 호텔
 국제회의장

등 록 :

회원 구분	등 록 금 (국내인사)	
	1984년 7월 31일까지	1984년 8월 1일부터
정 회 원	₩70,000	₩90,000
학생회원	₩30,000	₩40,000
일일회원		₩20,000

* 학생회원이란 현재 각 대학 관련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원 학생을 말하며 대회시 발행되는 각종 인쇄물만을 제공한다.

◎ 대회 프로그램 ◎

I. 학술 프로그램

국내의 석학에 의한 특강 및 심포지움과 관련 분야별 학술 논문 발표회가 열린다.

AAAP 임 원 : 회 장 한인규
 부 회 장 김춘수,
 P. F. Fennessy
 (뉴질랜드)

II. 간행물

발표될 연구논문과 특강 및 심포지움 원고가 실린 proceeding과 “한국의 축산”이란 책자가 등록회원에게 각 1권씩 무료로 배부되며, 여분은 대회장에서 일정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III. 전시회

대회 기간중 전국이래 최대규모의 축산업 및 생산물, 축산용기구·기계, 동물약품 및 관련서적 등의 전시회가 있다.

전시대상 품목:

- 1) 양계기구 및 시설, 부화 기구 및 종계
- 2) 양돈기구 및 시설, 분뇨처리 시설 및 종돈
- 3) 낙농기구
- 4) 사료첨가제 및 동물약품
- 5) 육제품
- 6) 유제품
- 7) 수의기구 및 약품
- 8) 모피, 피혁 및 양육산물
- 9) 사료 및 축산물 분석 시설 및 기구
- 10) 축산분야 각종 정기 간행물 및 서적
- 11) 초지관리 기구
- 12) 한국 토산품

박람회 에 생산품을 전시코자 하는 사람 또는 업체에서는 소정의 신청서를 이용, 전시위원회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처: 170 경기도 수원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내) AAAP 전시 위원회

IV. 사교 프로그램

대회 만찬회(1985. 5. 7), 농수산부 장관 환영 만찬회, 송별 파티 등이 있으며, 대회 만찬회 입장권을 예약 또는 그 당시 구입하면 된다.

V. 대회전 심포지움

주제: 온대지역의 가축사양체계

조직: 위 원 장 한인규

분과위원장 이영철(가금), 이택원(돼지)

맹원재(젓소), 정근기(육우)

등록: 이 심포지움에 참여하실 분은 아래와 같이 등록하길 바란다 (등록서식 이용)

회원구분	등록비 (국내인사)	
	1984. 7. 31까지	1984. 8. 1부터
정 회원	₩40,000	₩50,000
학생회원	₩20,000	₩25,000

*학생 회원이란 각대학 관련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원 학생을 말하며 대회시 발행되는 각종 인쇄물만 제공한다.

*제9차 INFIC 정기총회

제9차 국제 사료정보센터(INFIC) 정기총회가 1985년 5월 4일 서울에서 열리는데 학계, 업체, 기관 등에서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VI. 관광 프로그램

● 동반자 프로그램

일시: 1985. 5. 6~5. 10, 09:30~17:00 중 1일

- 1) 예지원 및 비원
- 2) 서울시내 관광
- 3) 민속촌 및 이천 도요
- 4) 서울대, 이화여대 및 한국과학기술원
- 5) 축산시험장 및 국립종축장

● 대회기간중 축산관련기관 방문계획

일시: 1985. 5. 8. 오후, 대회 참가자 전원무료

- 1) 서울우유협동조합 양주공장 및 경북궁
- 2) 천호부화장 및 경북궁, 국립박물관
- 3) 용인 제일농장 및 용인 자연농원
- 4) 안성목장 및 민속촌

5) 인천지역 사료공장 및 연안부두 관광

6) 축산시험장 및 국립종축장

●대회 후 관광 프로그램

일시 : 1985. 5. 11~5. 13(2박3일)

1) 설악산 관광코스

2) 경주 관광 코스

3) 제주도 관광 코스

4) 한려수도 관광 코스



'84 로얄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 7월 2일부터 5일까지

영국 스토틀라이에서 -

'84년도 로얄 국제농업박람회가 오는 7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영국 카벳트리시 근교에 있는 스토틀라이 국립농업센터(N·A·C)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장은 1백헥타의 대규모로서 박람회기간중 소, 돼지, 닭, 양 등의 증축을 전시하게 되며, 각종 야채류 및 곡물보관기술, 트랙터, 관개기술 등 각종 장비 및 기구가 전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전 대회기간중에 농업 컴퓨터전시회, 영국요리전시회, 화훼전시, 점프쇼 등도 가진다.

해마다 120여개국에서 참가해오고 있는 이 로얄쇼는 세계 최고의 농업마케팅장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 로얄쇼가 열리는 스토틀라이는 카벳트리공항에서 택시로 약 10분거리, 버밍햄 국제공항으로부터는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로 문의하면 된다.

Please return to:

International Department,
Royal Agricultural Society of England,
National Agricultural Centre, Stoneleigh,
Kenilworth, Warwickshire CV82LZ, England.

Name:

Address:

콜레스테롤은 고혈압과 무관

-부산대의대 정갑렬교수 연구논문서 밝혀-

콜레스테롤이 고혈압,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주요인자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왔으나, 동물성 지방질 섭취량이 적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고혈압 발병과는 거리가 멀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부산대학교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정갑렬교수가 『생리적 제인자들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의 다변량(多變量) 분석에 관한 조사연구』란 논문에서 나왔는데, 이 논문의 결과는 혈압에 관계하는 각종인자를 추출, 국내에서는 최초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변량 분석의 일종인 주인자(主因子) 분석법을 시도해 얻어낸 것이어서 관련 학계의 큰 주목을 끌고 있다.

鄭교수는 부산시청소속 청소부, 행정직공무원, 교사, 판사와 검사 등 공무원 1천 30명(남자 553명, 여자 4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논문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 모두의 혈압에 관련이 있는 주된 인자들은 연령, 가슴둘레, 체중, 혈색소, 콜레스테롤 등 5개인데, 이들 각 인자가 혈압에 미치는 구체적인 계수는 연령이 0.42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체중으로 0.332, 혈색소 0.272, 가슴둘레 0.239, 콜레스테롤 0.178의 순이었다.

한편 콜레스테롤보다는 나이가 많아지고 체

중이 늘어나거나 가슴둘레가 커지는게 혈압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병에 콜레스테롤 관계대

- 미 국립 심장·폐·혈액연구소서 밝혀 -

혈액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사람은 뿔수목 동물성 지방을 적게 섭취하고 약을 먹어서라도 血中콜레스테롤치를 떨어뜨려야 협심증과 같은 심장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美국립 심장 폐 혈액연구소(NHLBI)는 美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지난 10년동안 연구비 1억 5천만달러(약 1천 2백억원)를 들여 매우 광범위하게 조사,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NHLBI는 혈중콜레스테롤치가 2백65mg으로 평균(혈액 1백cc당 2백20mg정도)보다 높은 35세부터 59세까지의 남자 3천 8백여명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했다.

조사대상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식이요법만을, 다른 한쪽은 식이요법에 혈중콜레스테롤 억제약을 먹도록 했는데, 1년뒤의 결과는 식이요법그룹은 혈중콜레스테롤치가 4% 떨어졌지만 약을 함께 쓴 그룹은 무려 18~2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약을 먹은 사람들은 먹지않은 사람들보다 혈중콜레스테롤치가 떨어졌을 뿐아니라 심장병발병률은 19%나 줄었고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24%로 눈에 띄도록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콜레스테롤만이 심장병발병의 모든요인은 아니다. 심장병은 콜레스테롤을 비롯해 비만, 고혈압, 흡연, 운동부족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콜레스테롤의 혈중농도를 높이는 주범은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세포에 운반해 주는 LDL(저농도 지방 단백질)이며, 이에 반해 HDL(고

농도 지방단백질)은 혈액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한다. 따라서 심장병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LDL 수준을 줄이고 HDL을 높여야하며, 식이요법이 그 첫번째 단계다. 콜레스테롤이 풍부한 음식은 해로운 LDL의 수준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가 있는데 특히 지방가운데 포화지방은 LDL수준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버터, 베이컨, 쇠고기, 우유같은 동물성 식품은 이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으며 코코넛, 팥유등의 식물성기름 역시 마찬가지다.

주로 식물성 음식에 많은 불포화지방은 그 반대의 효과를 나타내 여기 속하는 옥수수기름, 콩기름, 참기름 등은 LDL의 수준을 낮추어준다. 생선기름도 같은 기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올리브유나 땅콩기름등의 불포화지방은 LDL수준에 별효과를 끼치지 않는다. 이 기름들은 미세하게 LDL을 낮게 할 뿐이며 대개 중립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타임誌>

한국농경제학회, 국제세미나 개최키로

- 7월 충남대에서 하계학술발표회 가져 -

한국농업경제학회(회장 주중환)는 지난 2월 18일 정기이사회를 갖고, 1984년도 하계학술발표회를 7월 7일~8일 양일간 충남대학교 농과대학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발표회 첫날에는 학회창립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경제발전과 농업구조 조정정책」이란 주제 아래 국제세미나를 갖기로 하였는데, 이 세미나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산업구조가 변화해 온 경과와, 그에 대응책에 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농업구조정책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이번 세미나에는 일본에서 小倉武一 등 3인의 학자가 참석할 예정이며, 대만에서는 1~

2인의 학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다.
하계 학술발표회 계획일정은 다음과 같다.

◇ 학회창립 25주년기념 국제세미나 ◇

- 주제 : 경제발전과 농업구조 조정정책
- 일시 : 1984년 7월 7일(토) 10:00~17:00
- 프로그램

제 1부 : 산업구조문제와 조정정책에 관한 실증분석

- 일본의 농업구조변화와 조정정책
- 한국농업구조의 변천과정과 문제
- 동남아시아의 농업구조의 변화와 조정정책
- 서구농업구조 조정정책에 대한 평가

제 2부 : 농업구조 조정정책방향

- 농촌공업개발과 겸업화의 방향
- 협업화와 조직화의 방향
- 농지유동화와 규모확대의 방향

제 3부 : 종합토론

◇ 개인발표회 ◇

- 자유주제
- 일시 : 1984년 7월 8일(일) 9:30~17:00

◇ 임시총회 및 다과회 ◇

- 발표회 종료후

아플라톡신 중독피해 단백질강화로 경감가능

Texas A & M大의 Joseph R. Veltmann 박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사료에 단백질의 질과 함량을 높임으로써 가금의 아플라톡신 중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단백질이 아플라톡신의 중독에 대한 가금의 저항능력

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의 심한 가뭄과 폭서로 인해 미중서부 및 동서부 지역에서 생산된 옥수수와의 PIK 보상곡물에 아플라톡신이 기준이상 함유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과 최근들어 卍간의 옥수수 거래에 있어서 아플라톡신의 함유수준을 20 ppb에서 100ppb로 완화한데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곡물저장중의 아플라톡신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곡물에 암모니아 처리하거나 프로피온산 또는 최근에 알려진 Noxime ethers 등을 처리하는 바 Noxime ethers는 고온에 약하므로 펠렛사료 등에는 효과가 없다. (USFGC)

농산물수입 다변화 검토

농수산부는 미국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농산물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한 농수산물 15억 5천 3백만달러 가운데 미국에서 들여온 것이 11억 7천 4백만 달러로 76.5%를 차지함으로써 필요한 식량의 안정적 확보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수산부는 이에따라 최근 축산물의 수요 증가로 늘어나는 사료곡물의 일부를 飼綠肥 작물 증산에 의한 국산사료를 대체하는 한편 수수, 호밀, 귀리, 밀 등 사료곡물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수입선도 대미일변도에서 태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수입한 농산물은 곡류가 모두 11억 1천만 달러로 전체에 92.7%, 축산물이 50.4%이며, 특히 콩·면실유·사료 첨가제는 1백%, 소맥 96.2%, 옥수수 97.1%를 차지했다.

농수축산물 표준거래단위 시행

- 축산물 등 37개 품목, 6월부터 -

농수산부는 농수축산물의 유통능률향상, 상품성 제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농수축산물 37개 품목에 대한 표준거래단위를 제정, 각 시도 및 관련기관에 추진계획을 시달렸다.

이는 작년에 마련된 시안을 기초로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을 집약, 미비점을 보완한 것인데 3월부터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두어 홍보·제도한 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품 목	거래단계	거 래 단 위			비 고
		거래단위	거래단량	포 장 재	
쇠 고 기	도 매		kg		소비자 가격 표시 500g 기준
돼지고기 포 장 육	소 매 도·소매	포 장	g	스트레치필름	
			250g, 500g 1, 2, 3, 5 kg		
닭 고 기	도·소매	포 장	g, 수	폴리에틸렌	
계 란	도·소매	판 출	30개	"	
			10개	"	

*수입쇠고기 포장육의 정육은 1kg이내, 갈비는 3kg이내 허가 단, 자동 가격 표시기에 의한 포장은 거래단위량의 근사치 허용

양계질병세미나

— 전경련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



(박길수 사장) (알하인 박사) (이영욱 박사)

덕수가축약품상사(대표 박길수)는 지난 3월 20일 전경련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양축가, 학계, 업계 인사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계 질병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화란 인터넷트사의 알 하인 박사(수의학)는 전

세계 70여개 양계국을 순회하면서 강습회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덕수가축에 의해 초청되어 세미나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이 날은 ILT, ED S-76, ND, IB, IBD 등 주요한 닭질병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알 하인박사는 양계농가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많은 질병에 대해 학술적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환경개선·세균균절·질병예방과 치료만이 질병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백신의 종류는 2가지로 사독과 생독이 있는데 생독은 바이러스 확산으로 질병발생율의 위험이 있고, 닭의 스트레스를 주므로 호흡기에 부작용을 주는 예도 있다고 전하고 면역형성이 빠르고 시술이 용이해 노동력 절감에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사독백신은 확산이 없고 면역지속

기간이 길으나 노동력과 시간이 낭비된다는 단점도 지적되었다.

이어서 ILT 발표에는 위생문제 강화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을 하는 길이 ILT의 피해를 줄이는 첩경이라고 밝히고 ILT는 병균자체가 다양해 특정제품이 반드시 좋다는 정설은 성립될수 없으며, 계체와 질병과의 상관관계 여하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판명될수 있다고 밝혔다. ILT 백신의 접종은 점안법이 좋고 음수접종은 주의를 요하며 분무접종은 호흡기 증상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ND는 종계에서 철저한 예방으로 백신접종에 의해 높은 이행항체가 형성되지만 야외에서 감염이 될수 있다고 말하고, 생독백신을 1~3일령에 접종해도 효과가 없고 어린병아리에 사독백신이 유리함에 대해 시료를 토대로한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산란전 18~20주령에 모든 백신을 접종해야 하고 산란시는 어느백신을 막론하고 접종을 금해야 하며, 혈액 항체보다 세포항체가 직접면역항체가 크다고 하였다.

IBD는 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질병으로 면역억제현상을 일으키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였다. 브로일러에서는 생산성 저하와 면역 부진증 증세를 일으키고 4주령 이하

에서 문제되는 질병으로 3~4주령 이전에 면역억제현상, 바로 준임상이 더 큰 피해를 준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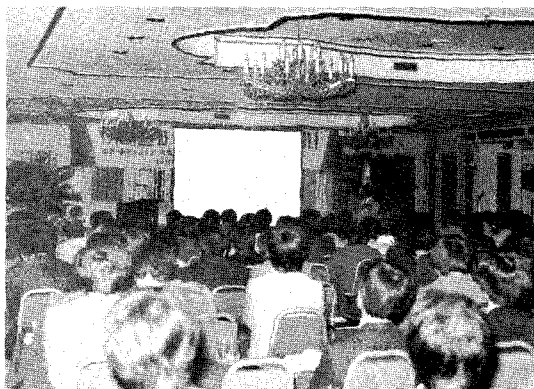
백신접종시(사독) 병아리 모체이행항체가 있으면 효과가 없고 모체항체가 높을때 면역효과가 있어 사용하지 말아야하며, IBD 생독백신 조건은 억제현상이 없어야 하고 면역학적으로 우수하고 유전학적으로 안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벳트사의 백신 사용법에 대한 VTR상영과 질문을 끝으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통역에는 이영옥박사(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 연구관)가 담당했다.

이메킬과 세균성 양계질병 세미나

- 롯데호텔 2층 에머랄드룸에서 -



△ 롯데호텔에서 열린 녹십자(주) 세미나에서는 세균성 양계질병에 대한 중점논의로 양축가와 유관업체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녹십자수의약품(주) (대표 장인상)은 지난 3월 27일 롯데호텔 2층 에머랄드룸에서 이메킬과 세균성 양계질병 세미나를 양축가, 유관업체



(이승호 부사장)



(듀플레이 박사)



(김선중 박사)



(박근식 박사)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승호부사장이 대신한 인사말에서 장인상 대표는 「축산업계 불황을 3자(양축가, 동물약품업체, 사료업체)가 공동으로 대처해서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강조하고, 「오늘 세미나가 불황을 이기는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양계산업 발전에 모두 힘을 합치자」고 하였다.

이어진 세미나 발표에서 「세균성 양계질병과 이메킬」에 대해 Dr. Duplay 박사(몽 메리유 양계담당, 수의학)는 아직도 많은 양계장, 부화장들이 대장균증, 살모넬라증, 파스텔라균증, 코라이자 등과 같은 세균성 전염병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제하고, 대장균증은 닭, 칠면조, 오리, 거위 등이 가장 많이 감염되며, 이로 인한 피해도 크다고 말했다. 또 계란을 낳을 때 난자표면에 묻은 땅속의 대장균이 많이 오염되어 있어서, 병아리가 부화후 최초 7일 사이에 감염되어 계대염을 일으키며

발육을 지연시킨다고 설명했다.

또한 살모넬라균증은 계란내에 감염되어 계대아를 죽이거나 치명적인 손실을 주는데 사망율이 90%에 달한다고 강조하고 이메킬은 물, 사료에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각종 기관에 확산이 잘 되며, 내성을 유발하지 않고 사람, 닭에 안전하여 산란율, 비육에 영향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통역에는 김선중박사(서울대수의대)가 맡았고, 적절한 약제의 선택과 이메킬에 대한 설명도 곁했다.

「한국에서의 닭질병발생 및 양계장의 세균오염상황 분석과 세균성 질병대책」에서 박근식박사(가축위생연구소 검정화학과장)는 발표에 앞서 침체되었던 양계산업의 요인중에 닭질병에도 요인이 있다고 하고, 모든 질병은 세균으로 인해서 발병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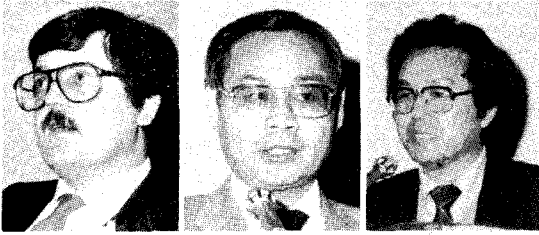
86, 88계기로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정부당국에서도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의 위생문제를 검토하고 있어, 식품경쟁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하고, 양축가 양계협회, 학자, 연구기관이 구심점을 찾아 양계산업의 기반을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양계의 생산성 저해요인은 닭품종영양, 약품, 관리, 질병예방이 중요하고, 원인별 가금질병분석(1982년통계)을 보면 병독성 38.1%, 기생충성 4.9%, 미균성 0.6% 기타 14.0%, 영양성 3.8%, 비노생식기 1.9%, 소화기계통 7.4%, 세균성 29.1% 감염율을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일령별 질병발생분포는 30일령 이하(육추기) 14.7%, 30~150일령(육성기) 42.6%, 150일령 이상(성계, 산란계) 42.8%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질병예방이 양계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84수의축산 세미나

- 프라자 호텔 덕수홀에서 -



(마테오스 박사) (한인규 박사) (김봉환 박사)

(주)유한양행 (대표 박춘거)은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에 서울 프라자호텔 22층 덕수홀에서 양축가, 관련업계 인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4수의학 세미나를 호남지역 23일 광주 관광호텔 7층 무등홀과, 영남지역 24일 부산크라운호텔 2층 석류홀에서 각각 개최하였다.

손근호차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최대현 농축부상무의 인사말을 통해 사료곡물가 원가 상승요인으로 양축가 부담이 커 축산업계 발전에 저해되므로 양축가의 적절한 대책과 원가절감에 각별히 힘쓸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미국 Cyanamid사의 Mateos 박사는 「아보란-20, 오레오 셸파의 사용 및 효과」 발표에서 육계에 콕시들텐제와 아보란-20을 첨가하면 평균 100g 증체효과와 사료효율도 월등히 향상된다고 강조하고 성장촉진제의 특징은 사료효율, 증체율 향상과 제품의 안정성, 저장, 제조에 안정하고 흡수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동물에 절대 안전해야 하며, 사용자 안전과 환경에 안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인규박사(서울대농대)는 「성장촉진제의 개념과 종류」에서 성장촉진제란 비영양성 물질이면서 동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제제로 현재 알려진 성장촉진제로는 항생물질제, 생균제, 화학물질제, 호르몬제, 효소, UGF 등이 있다고 밝

히고 항생제가 성장촉진제에 사용되고 있으며, 산란율증가, 증체에도 이용되며 닭과 소에 모넨신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출하 7일전에도 항생제 투여를 중지하고 주사와 음수투여는 2주 전에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고기, 우유, 계란을 많이 소비하는 국제적 손님이 앞으로 많이 찾아올 것으로 미루어 제 2의 축산발전을 이룩하여 80년대 후반이 생산경제, 소비 등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항생제사용 실제로는 오래된 축사이거나 위생환경과 사양관리가 완벽치 못한 곳에서 사용이 불가피한데 우리나라와 같은 사양체계하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말하고, 우리나라의 사양체계에 부합하는 항생제 및 화학제제의 첨가수준과 첨가효과를 규명할 필요가 불가피한데 이런 연구가 부족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하였다.

이어서 김봉환박사(경북대수의학과)의 우리나라의 돼지 발생 발생동향과 대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 유한양행 수의축산 세미나에서는 출하 일주일전에는 항생제 투여를 중지하고, 주사제는 2주 전에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바에이카 종계 관리자 세미나

- 한일농원 2층 회의실에서 -



(차두홍 사장)



(김춘수 상무)

한일농원(대표 차두홍)은 지난 3월 17일부터 18일(1박2일)에 아바에이카종계 관리자 교육을 동사 2층 회의실에서 전국 종계농장 관리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차두홍사장의 인사말 대신에 김춘수 상무는 최근 미국에서 제작된 새로운 사양관리 지침서를 전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에 참고해 달라고 당부하고, 작년도 1인당 계육소비량은 3.3kg에서 금년도에는 3.5~3.6kg 소비가 예측된다고 하였다.

이어서 동사 농장 소개의 슬라이드가 30분에 걸쳐 상영되었다.



아바에이카의 장점 및 시정점유율에 관해 오무제 영업부장의 발표가 있은후, 육추준비와 육추관리에 대한 발표에서 김기봉 생산과장은 육추는 양계에 있어서 시작이며 전기간중 가장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성공적인 육추에 있어서는 신용있는 병아리 선택과 계획성 있게 입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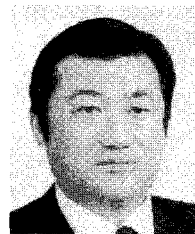
또한 아무리 좋은 병아리를 택하여도 사양가 없이는 좋은 육추율과 산란성적, 높은 증체율을 기대할수 없다고 역설하였다.

닭의 일반 호흡기 질병의 감별진단에 대해서는 박철진 수의사가 발표했고, 김철중 박사(서울대 수의대)의 보조 설명도 있었다.

다음 날에는 점등관리에 김춘수 상무, 질병 방역대책에 박철진 수의사, 초산이후 관리와 방역프로그램 작성요령 및 그 실제, 환경위생 및 종란관리 발표가 있었다.

흥성사료, 근로자의 날 기념식

- 원가절감과 친절봉사 다짐 -



(정태원 사장)

<주>흥성사료(대표 정태원)는 지난 3월 9일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사 앞뜰에서 근로자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정태원사장은 치사를 통해 그동안 수고해 준 전직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치하하고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한 유일한 선택은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원가의 절감만이 있을 뿐이라고 지



△ 동사 앞에서 거행된 근로자의 날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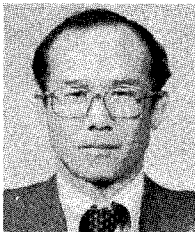
적하고, 이것은 양축가를 위한 배합사료의 품질향상과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서비스의식의 생활화로 사내 분위기를 보다 명랑하게 조성하고 고객에 대한 친절 봉사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도록 전직원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그동안 본사 발전에 기여도가 높았던 영업부 강노용과장의 3명에 대한 공로상 수여와 총무부 정중환기사의 16명에 대한 개근상 수여식을 갖고 전직원에 대한 기념품 증정을 끝으로 뜻깊은 행사를 끝냈다.

현대식 건물 반월공장 완공

- SF 과학사료 -



(신정재 사장)

SF 과학사료(대표 신정재)는 지난 3월 반월 공장을 완공하였다.

타이로신, 비고솔 등 훌륭한 제품으로 양축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동사는 대지 1,500평, 전평 500여평의 현대식 건물에 최신 자동주사제 시설 및 믹스시설을 갖춘 새 공장준공으로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로 좋은 제품생산에 만전을 기해 양축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4월 중으로 안양공장과 서울사무소를 이전하는데 당분간은 연락소를 남겨둘 것이라고 한다.
< 본사 및 공장 >

주소: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원시리 반월공단 B-86

전화: (0435) 6-0389, 0390

<서울연락소>

714-6331-3(종전과 같음)



돼지, 소 수정난이식 세미나

- 전경련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

<주> 다다상사(대표 강형모)는 지난 3월 22일(목)에 돼지, 소 수정난이식 세미나를 양축가, 유관업체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강형모사장은 급변하는 축산업계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오늘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업계 기술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밝

했다.

이어서 김정웅전무의 경과보고와 강사소개로 세미나를 시작했다.

트랜스 월드 제네틱스의 연혁 및 ET 사업 안내에 대해 LAI DLAW 영업이사가 김정웅상무의 통역으로 발표했다.

또 MURRAY 박사 (트랜스 월드 제네틱스 수의학)는 가축의 수정란 이식과 가축 개량효과 (소, 돼지)를, 임경순 박사 (서울대 농대)의 통역으로 슬라이드를 통해 발표했다.

이어서 정길생 박사 (건국대 축대)는 국내 수정란이식 시험보고를 그동안 두산개발에서 시험 연구를 토대로 발표했다.

또한 임경순 박사(서울대 농대)의 국내 ET 시험보고 발표를 끝으로 세미나를 마쳤다.

AAAP(아세아태평양지역 축산 학회)총회에서 콜레스테롤 다룰듯

3월 30일 수원외의 경기도수의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된 중부지역 (한수이남)양계업자를 대상으로 한 질병 및 배합사료 강습회에서 서울대농대 한인규교수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콜레스테롤과 배합사료품질 및 가격에 대해서 약 1시간 반에 걸쳐 열강을 하였다.

특히 콜레스테롤에 대하여는 이제 겨우 돼지고기 6~7kg, 계란 120여개를 먹는 나라에서 돼지고기가 남아돌고 콜레스테롤 문제를 걱정하고 있으니 넉센스가 아닐수 없다. 콜레스테롤은 돼지고기나 계란을 먹지 않아도 쌀밥, 고기 지방으로부터도 합성이 된다. 다만 계란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공급하는 식품이지만 사람은 식품으로 20%를 공급받고, 80%는 체내에서 합

성된다. 비타민 D 합성원료이며 성호르몬 세포합성 등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 물질이다. 다만 많으면 혈관벽에 축적되어 고혈압을 일으킬 수도 있는 등 여러 원인중의 하나일 뿐이다.

심장병의 원인은 담배, 스트레스, 운동부족에 원인이 크며, 콜레스테롤은 돈같아서 많아도 적어도 걱정인 물질이다. 계란은 100여가지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귀중한 식품으로 고기 110kg, 계란 300여개, 우유 200kg을 먹는 미국인과 비교해서 계란을 기피한다는 것은 넉센스이다.

한국인은 성질이 급하고 단견이고 사고력과 참용성이 부족해서 좋다면 지렁이·굼벵이까지 마구 먹어치우고, 나쁘다면 안먹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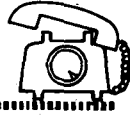
앞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오해가 없도록 생산자측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양계인은 생산자이면서 솔선해서 계란을 소비해야 한다.

미국사람은 더 먹어서는 안되지만 우리는 더 먹어야 된다는 것을 실험결과를 통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야 하는데 이 분야에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산학협동은 이런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현재 한인규 교수는 양계업자를 위한 지칠줄 모르는 신념과 철학으로 콜레스테롤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여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AAAP (아세아 태평양지역 축산학회)총회에서 기조연설과 한 분과활동을 통해 콜레스테롤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세아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발표를 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 고심을 하고 있다.

한편 콜레스테롤 문제는 3월 25일 KBS 라디오, 28일 한국일보, 31일 동아일보, 4월 1일 MBC-TV에 각각 보도된 바 있다.

업계단신



○맹원재교수 : 지난 3월 2일 중앙대에서 전국대 사료학과로 전임.

한편, 맹교수는 3월초 미국의 사료산업과 축산현황을 살피고 온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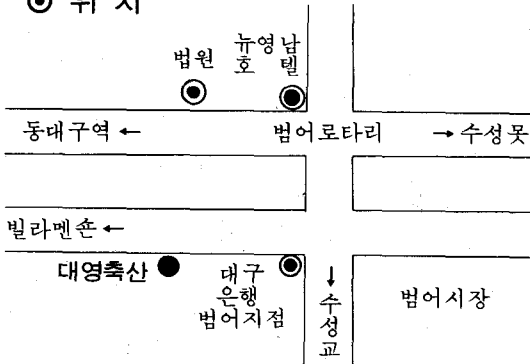
○수의사회 회장에 전동용씨 : 2월 21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대한수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윤쾌병회장의 후임으로 전동용씨 (양돈협회장)가 새로이 선임되었다.

○대영축산약품·기구(이진부·김진일) : 각종 예방 및 치료약품과 착유기, 냉각기 등을 취급해오고 있는 동사는 3월 20일자로 다음과 같이 전화번호를 변경했다.

약품부 : 754-22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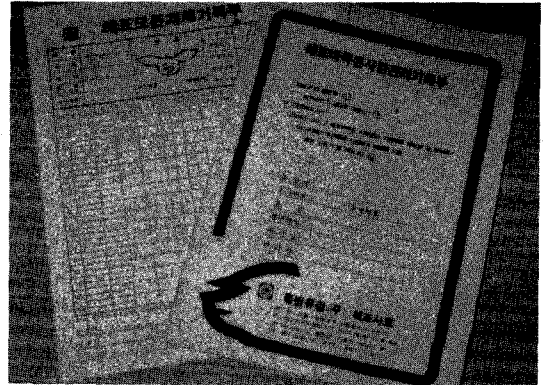
기구부 : 754-2231~2, 72-2607(야)

◎ 위치



○동방유량<주> 해표사료(대표 신명수) : 계속적인 판매신장에 따라 지난 1월 채용했던 신입사원 5명에 대한 2개월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각 지역 및 실무부서에 배치하였다.

• 이장영(수원공장 생산부)



△ 동방유량 해표사료의 해표통신

- 김대연(사료사업부 판촉과)
- 최인주(사료사업부 조사담당)
- 안병길(사료사업부 조사담당)
- 최상경(사료사업부 조사담당)

한편 동사는 그동안 양돈관계 현황판, 기록부, 사양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사양가들에게 알찬 경영지도를 계속해오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축산정보, 특수 기술, 사료업계동향 등 갖가지 최신정보를 담은 『해표통신』을 격월제로 발행하여 양축가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전력하고 있다.

○제일양계기구(대표 박호일) : 83년말 수출입허가를 취득한 동사는 그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싱가포르 티글아시아사에 수출키 위해 지난 3월 23일 채관용케이지 4만달러어치를 선적하였다.

또한 동사는 육계종제용과 수탉용 케이지 4만달러어치를 4월에 수출키로 계약한바 있으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도 상담중에 있다.

○녹십자수의약품(대표 장인상) : 이승호전무이사가 부사장으로 승진되었으며, 새 전무이사에는 전희영상무가 승진 발령되었다.

○**대한사료<주> (대표 김상태)**: 동사는 새로운 도약과 조직강화를 위해 3개월간의 수습교육을 마친 신규사원 4명을 각 부서에 발령 배치하였다.

<영업부>

김종남(건국대 축산과졸)

유원중(고려대 축산과졸)

이상철(중앙대 축산과졸)

<경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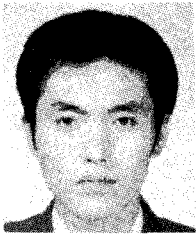
남영현(인하대 무역학과졸)



△ 김종남 씨



△ 유원중 씨



△ 이상철 씨



△ 남영현 씨

○**<주>대성미생물연구소**: 동사는 3월 2일부터 아래와 같이 사원을 신규 채용했다.

김일남(강원대 축산과졸): 영업부(강원도)

소우섭(전남대 수의과졸): 생산부

권순현(서울대 수의과졸): 기획관리실개발과
한편 3월 15일자로 전화가 변경·신설되었다.
전화번호: 794-5201~3(변경 신설)

794-3221, 2(중전과 동일)

○**이원직회장(대성미생물연구소)**: 개발과 황명수 대리를 대동하고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싱가포르, 말

레이지아, 태국, 필리핀, 대만 등을 방문.

이원직회장은 이번 방문기간중 동남아지역의 동물약품업계 및 축산업계를 돌아보고 백신 및 화학제품의 수출 문제에 대하여 상담했으며, 마닐라 가금박람회를 참관한 바 있다.

○**<주>진양사료(대표 강성배)**: 동사는 지난 3월 1일 본사 및 각 출장소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65주년 및 창사 제 9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장기근속자와 유공사원에 대한 표창 및 근로자 자녀 20명에 대한 학비 보조금 지급이 있었다.

이어서 각 부서대항 마라톤 대회 및 생산직대 사무직과의 친선 배구대회를 마친 후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도약을 다짐하는 대회의 광장을 갖기도 하였다.



△ 진양사료의 각 부서간 친선 배구대회

○**김정인씨(신촌사료 상무)**: 캐나다국제 곡물연구소 초청으로 4월 28일 출국할 예정. 캐나다사료 및 유채실 산업을 시찰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면서 한달간 머물 예정.

○**임병규씨(서울사료 상무)**: 프랑스 약품업계를 둘러보기 위해 4월 6일 출국. 4월 20일 귀국 예정.

○과학축산(대표 이태일) : 영업부 민운기 차장과 대구출장소 서중호소장은 지난 3월 4일 세미나 참석 및 업무협의차 일본에 출국, 10여일동안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했다.

이들은 동사가 절찬리에 판매중인 성장촉진항생제「엔라신-10」의 원료 공급처인 다게다(武田藥品)에서 양국의 축산현황에 관한 정보교환 및 야외시험결과를 분석하고, 동 제품의 마아케팅에 관해 협의했으며, 3월 8일부터는 홍콩에서 미국「케민」社 주최로 곧 한국에 소개될 액상 항곰팡이제「마이코 커브(Myco-Curb)」와 향미료「피그트리트」(Pig Treet)와 「캡자일」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또 대만의 VANA社 아시아支社에서는 4월부터 한국 시장에 최초로 소개될 특신의 결착 배설제「엔티독스-바나」와「프로세락」에 관해 정보를 교환하는 등 바쁜 일정을 마쳤다.

한편 동사는 업무의 활성화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영업부에 최우근씨를 특채했으며 3월 24일자로 다음과 같이 승진 발령하였다.

〈영업부〉

민운기 차장 → 부장
장홍섭 대리 → 과장
허주팔·임인철 → 대리

〈총무부〉

최택의 → 대리

○곡물마케팅 강좌 : 캔사스 주립대학교 부설 International Grains Program은 미국 대두 및 곡물의 생산, 유통 및 교역의 각 과정 및 기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미국곡물 마케팅에 관한 단기 강좌를 개설한다.

본과정은 캔사스에서 시티 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맨하튼에서 동일한 내용의 강좌가 2차례로 나뉘어 개설되는데, 1차는 4월 2일에서 13일까지, 2차는 6월 18일에서 29일까지 각각 2주일 동안이다.

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왕복 항공료외에 수강료는 735불이다. 수강료에는 기초적인 숙식비 및 교재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강좌는 영어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사람은 미국대두협회(전화 722-2601 <교>4386, 778-9114)로 문의바란다.

○한협축산(대표 박준영) : 한협 603, 한협 607, 코브등 국산중계 개발에 진력해 오고 있는 동사는 지난 2월 미국 Craft & Son 농장으로부터 S·P·F 종돈을 수입, 안성에 종돈장을 설립하였다.

○제일재당(대표 이종규) : 일본에 돼지고기 36톤을 수출키로 합의, 계약을 체결한 동사는 규격톤 3천두분을 포장육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번 돼지고기 수출 재개로 앞으로 수출물량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며,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돼지 수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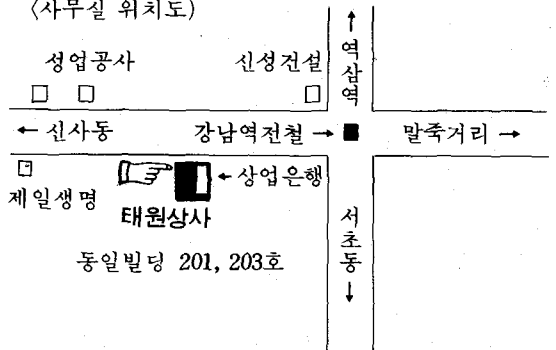
○김기용씨(퓨리나 코리아) : 부장에서 구매담당 이사로 승진

○태원상사(대표 이원중) : 3월 31일자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전화번호를 변경하였다.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445-3 동일빌딩 201, 203호

• 전화 : 557-6615~6, 557-6458, 6469

〈사무실 위치도〉



○ **WPSA 총회 성황예상** : 오는 8월 12일부터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되는 제 17차 WPSA 총회 및 박람회에 전 세계에서 3,0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참석, 대성황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참가희망자는 2,000명을 넘어섰으며, 박람회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도 150건이 넘는다고 한다.

○ **정진국 사장(오진양행)** : 일본, 미국의 축산업계를 돌아보기 위해 3월 11일 출국했다. 4월중 귀국할 예정.

○ **가락동 도매시장 입주확정**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할 도매회사 및 중매인 점포수가 확정되었다.

도매회사는 청과시장 4, 수산물 2, 축산물 1개 등 7개이고, 점포수는 청과물 462, 수산물 206 등 6백 68개이다.

○ **시범경매가축시장 추가** : 축협은 82년에 16개, 83년에 12개의 시범경매 가축시장을 운영한데 이어 올해에도 2억 8천 8백만원을 투입, 12개소를 운영키로 했다.

○ **제일제당(대표 이종규)** : 사무자동화를 위해 본사와 용인 종합연수원에 퍼스컴 상설교육장을 설치, 1천 5백명 전사원을 대상으로 7일 과정의 전산기초과정교육을 실시하였다.

○ **한일농원(대표 차두홍)** : 아바에이카 종계사양관리세미나를 4월 16일 오후 1시 동사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초청강사는 미국 아바에이카 원종농장맨스킨 박사(영양학 고문)의 육계 및 종계의 사양관리, 일본 아바에이카(주) 영업부장 이도의 일본 브로일러의 현황, 서울대 수의대 김선중 박사의 최근 우리나라 질병동향과 대책의 발표를 갖는다.

참가 대상은 전국 종계업, 부화업자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과학시스템(대표 박만후)** : 사세확장과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영업 1과장에 현해(전 중앙사료 판매과장)씨를 영입하여 사료공장 등 시설업무에 신속을 기하도록 했다.

한편 G. S. I 사일로사 영업부장 Kenneth Mayer(동남아시아 지역책임자)씨가 2월 18일에 방한하여 각 사료공장의 사일로 증설에 대한 협의를 하고 25일 귀국하였다. 동사는 미국 G. S. I 사일로사와 Peabody 사일로사의 한국 총판을 맡고 있다.

또한 동사는 폐수 정화시설(B. O. D 50 이하) 단단백세포 제조시설을 공급하게 되었다. 세계 최초로 단단백세포 사료(Monocell Protein) 제조시설 및 폐수 2차 정화시설의 국제특허 생산업체인 서독 EPCO사와 한국총판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에 착수했다.

일본 양계연수생 모집

다음과 같이 일본 양계연수생을 모집하니 희망자는 대한양계협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인원 : 4명
 2. 대상지 : 일본 사이다마겐 채란양계장(근대 시설농장).
 3. 자격 : 가) 본회회원 또는 회원농장의 종업원을 우대함.
나) 학력 - 고졸정도의 학력소지자.
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양계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자.
 4. 연수기간 약 2년간으로 숙식 제공하고 기본 보수가 있음.
 5. 신청 : 가) 신청기일 84.4.20까지
나) 신청서류
1) 이력서 1통 2) 신청서 1통
-

○**김포축산약품상사(대표 김호영)** : 지난 3월 20일부터 김포지역 축산업 발전을 도모코자 양축상담 등의 서비스도 겸한 약품공급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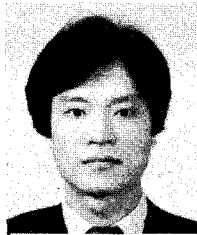
주소 : 김포군 김포읍 북변리 408번지
전화 : 2-2830

○**유한양행(대표 박춘거)** : 농축부의 승격에 따라 영업활성화 및 업무효율향상을 위하여 영업부에 신입사원을 공채하였다.

- △ 권혁표 (건국대 축산과졸)
- △ 오홍렬 (충북대 축산과졸)



(권혁표 씨)



(오홍렬 씨)

○**일성산업(주)(대표 오 범)** : 어분, 어유, 어즙흡착사로 생산업체로 각종 어류물을 특수 가공처리하여 구미수출 제약체결을 하고, 지난 2월 20일 첫 수출하였다. 동사 오 범 사장은 지난 3월 3일 미국의 수출시장을 둘러보고 23일 귀국하였다.

한편 사세확장과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3월 1일부로 서울사무소를 이전하였다.

주소 : 서울·중구 태평로 2가 69-13
(천일빌딩 301호)

전화 : 754-4211~2

○**(주)중앙케미칼(대표 김무진)** : 신제품 에리설파(Ery-Sulfa)를 개발하고, 수입 신제품 이보멕(Ivomec)과 같이 6월초에 각각 시판할 예정이다. 에리설파는 항생제와 설파제가 복합된 강력 호흡기질병 치료제로서 CRD,

CCRD 등의 예방과 치료에 특효를 나타낸다.

한편 국내 최초의 내·외부 구충제인 이보멕 주사제는 Avermectin이라는 새로운 계열의 광범위 구충제의 일종으로서 단 1회 주사로 내·외부 기생충을 동시에 박멸할 수 있는 종합 구충제이다.

○**한양수의약품공업사(대표 조훈영)** : 최근 도입우를 비롯하여 소에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소버짐(Ringworm: 백선)치료제 「강옥실」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신속하고 강력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요오드, 요오드칼륨, 살리실산, 페놀, 안식향산, 소독용에탄올의 복합처방제로 소버짐을 비롯한 곰팡이성 피부질환, 세균성피부질환, 부제병의 방부치료의 전문제제로서 국내외의 충분한 자료와 전문가의 자문으로 개발된 것이다.

또 모낭충, 개선충 등 피부기생충에 의한 피부병치료제 「부합벤질액」(안식향산벤질 87.5%의 복합제)을 개발판매하며, 차아염소산나트륨 10%제제의 음수검용 살균소독제 「하이탁스」도 발매중이다.

○**(주)흥성사료(대표 정태원)** : 사세확장과 고객에 대한 애프터서비스의 강화로 업무의 조직정비 및 활성화를 촉진키위해 류천희(전 대한사료근무:수의사)씨를 지난 3월 12일부로 영업부 차장으로 임용하였다.



(류천희 차장)

○허신행 박사, 연구위원 승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영진)은 4월 2일자로 허신행 수석연구원을 연구위원으로 승진 발령했다.

○SF 과학사료(대표 신정재) : 지난 3월 15일부로 기획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부에 직원을 보강하였다.

한편 영업부(부산 주재)에 사원 1명을 특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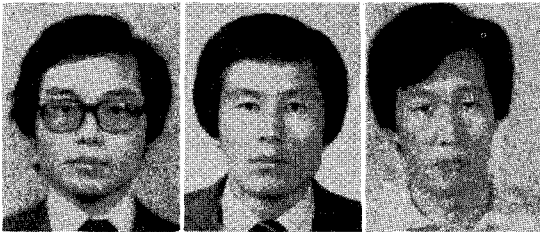
〈기획부〉

이정하(동아대졸, 전 영업부)

정지성(상지대졸, 전 영업부)

〈영업부〉

임채홍(전 금성사료 근무)



(이정하 씨)

(정지성 씨)

(임채홍 씨)

○과학시스템(대표 박만후) : 업무영역의 확장으로 지난 3월 27일 전시장 겸 매장을 50여평의 건물로 이전하고, 유능한 영업사원을 모집중에 있다.

주소 : 서울·성동구 능동 247-1.

(비봉 BD 101호)

전화 : 445-1886, 0212(전과 동일)

TLX : K 26860 KISYS

○동방유량<주>해표사료(대표 신명수) : 4월 12일자로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

전화 : 676-9123, (교)613-8, 665-7

(야간)676-9116, 9150

○다나축산 기구(대표 양창욱) : 사세 확장과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지난 3월 중순에 서울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주소 : 서울·중구 충정로1가 81-1

전화 : 723-9977

○다다상사(대표 강형모) : 지난 3월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김진영부장(전 양돈협회 홍보부장)을 영입하였다.

■ 채란분과위원회 및 세미나 (매월 15일)

■ 육계분과위원회 및 세미나 (매월 27일)

채란 및 육계 분과위원은 물론 각 지역 회원, 계우회회원 외에도 관심있는 양계인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토요일, 공휴일은 익일로 순연됨)